

# 『周易』 姤卦・復卦의 관점에서 본 「齋居感興」의 治心<sup>\*</sup>

－ 幾微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진희<sup>\*\*</sup>

- 
1. 서론
  2. 「齋居感興」에 나타난 姤卦와 復卦
  3. 復卦의 유형에 따른 治心 공부법
    - 1) 善惡之復을 통해 본 誠心 공부
    - 2) 動靜之復을 통해 본 正心 공부
  4. 결론
-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주희(朱熹, 1130~1200)의 「재거감흥(齋居感興)」 제8수를 『주역(周易)』 구괘(姤卦) 및 복괘(復卦)의 관점에서 분석한 채모(蔡模, 1188~1246)의 주석을 바탕으로 기미(幾微)와 관련한 인심(人心)의 수양법을 살펴보고 이를 치심(治心)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이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이 시의 1~4구에 나타난 구괘와 복괘의 대비적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복괘의 기미가 갖는 수양적 효용성을 추론하였다. 제3장에서는 복괘의 유형인 선악지복(善惡之復)과 동정지복(動靜之復)에 근거하여 5~12구에 나타난 치심 공부법을 논구

---

<sup>\*</sup>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4681).

<sup>\*\*</sup> 전북대학교 한스타일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jbnuhao@jbnu.ac.kr

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를 통해 선악(善惡)의 기미에 대처하는 성심(誠心) 공부법, 그리고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을 다루는 정심(正心) 공부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朱熹, 「齋居感興」, 治心, 幾微, 姤卦, 復卦

## 1. 서론

본 논문은 주희(朱熹, 1130~1200)의 「재거감흥(齋居感興)」<sup>1)</sup> 제8수를 『주역(周易)』 구괘(姤卦) 및 복괘(復卦)의 관점에서 분석한 채모(蔡模, 1188~1246)<sup>2)</sup>의 주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 시에 내포된 주희의 치심(治心) 수양론의 일면을 유추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거감흥」 제8수에 나타난 기미(幾微), 선단(善端), 재계(齋戒) 등의 시어는 주희의 치심 수양론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이다. 첫째로 기미는 주희의 치심 수양론이 기미와 관련한 성찰 공부법인 성의(誠意)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sup>3)</sup>에서 수양의 대상으로 지목된

1) 「재거감흥」이라는 제목의 연작시 스무 편은 주희가 44세가 되던 해인 건도(乾道) 9년(1173)에 지어졌다. 그때는 그가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와 『통서해(通書解)』 등을 완성하고, 『근사록(近思錄)』 저술에 매진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2) 남송(南宋) 건양(建陽, 지금의 복건)의 이학세가(理學世家) 출신 채모는 조부인 채원정(蔡元定, 1135~1198), 부친인 채침(蔡沈, 1167~1230), 백부인 채연(蔡淵, 1156~1236)과 더불어 채씨구유(蔡氏九儒)에 속한다. 채원정이 주희의 친구이자 제자가 된 이래로 채씨 부자, 형제, 조손 모두가 주학간성(朱學干城)으로 성장해가는 배경 속에서, 채모는 『속근사록(續近思錄)』, 『대학연설(大學衍說)』, 『논맹집소(論孟集疏)』 등을 지어 주자학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역전집해(易傳集解)』의 저술을 통해 주역(周易)에 대한 식견을 겸비한 이학가로 거듭났다.

3) 주희의 치심 수양론은 성의정심(誠意正心)과 정의입신(精義入神)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희가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밝힌 주석에 따르면, 성의(誠意)를 위해 신독(愼獨)이 필요하며 신독에 있어 기미를 살피는 심기(審幾)가 중요하다. 김진희, 『『근사록(近思錄)』 주석서에 나타난 주자설 고찰 — 치심(治心) 수양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112집, 2023 참고.

다. 둘째로 선단은 주희가 치심의 성전(聖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경(詩經)』을 봄으로써 선단을 감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sup>4)</sup>과 관련이 있다. 셋째로 재계는 치심 수양의 완성 단계를 표현한 문구인 “이차세심(以此洗心)”과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시어이다.<sup>5)</sup>

이들 시어 중에서 재계는 『주역』 복괘의 맥락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재거감홍」 제8수의 아홉 번째 시구인 “몸을 숨기어 재계에 힘쓴다(掩身事齋戒)”는 주희가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복괘의 「상전(象傳)」을 주석한 내용<sup>6)</sup>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열한 번째 시구인 “관문을 닫아 상인과 나그네를 쉬게 한다(閉關息商旅)”는 복괘의 「상전」에서 유래하였다.<sup>7)</sup> 이 외에도 이 시의 마지막인 열두 번째 시구 “음

4) 치심의 과정은 선악(善惡)으로 분과되어 있던 기미의 영역에서 지선(至善)의 기상(氣象)을 확보하는 경지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선단(善端)의 감발(感發)에 말미암아 선심(善心)을 흥기하고 악지(惡志)를 경계함으로써 성(誠)의 도리(道理)를 획득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희, 「朱熹의 『詩』 독법을 통해 본 治心 수양 — 觀詩와 讀詩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간』 56집, 2025 참고.

5) 위 연구에 따르면, 주희는 치심 수양의 과정에서 획득한 도리(道理)를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어 한 터럭의 불선함도 남아있지 않은 지선의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때 『주역(周易)·계사상전(繫辭上傳)』 제11장에 있는 “성인이 이로써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聖人, 以此洗心).”라는 말을 활용하였다. 『주역·계사상전』 제11장은 공자(孔子)가 역(易)을 만든 까닭과 역의 속성 및 효용에 관해 밝힌 내용이다. 이 장에 “성인이 이로써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聖人, 以此洗心)”, “성인이 이로써 재계한다(聖人, 以此齋戒)”라는 언급이 있다. 이에 관해 주희는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성인이 시초(蓍草), 괘(卦), 육효(六爻)의 덕(德)으로 마음을 씻어 그 마음이 적연한 상태(其心寂然)로 만든다고 하였으며, 성인이 재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신명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지(使其心神明不測)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주해하였다.

6) 『周易本義·象傳·復』, “月令, ‘是月, 齋戒掩身, 以待陰陽之所定.’”(『예기(禮記)·월령(月令)』에 따르면, 이 달에는 재계하고 몸을 숨기며 음양이 정해지기를 기다린다.)

7) 『周易·象傳·復』, “雷在地中, 復, 先王, 以, 至日, 閉關, 商旅不行, 后不省方.”(우레가 땅 가운데에 있는 것이 복괘이니, 선왕(先王)이 복괘를 본받아 지일(至日)에 관문을 닫아서 상인과 나그네가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금이 일을 살펴보지 않도록 하였다.) 주희는 이에 나타난 “閉關, 商旅不行”이라는 문장을 “閉關息商旅”라는 시구로 만들었다.

유한 도를 이끄는 저것을 끊어낸다(絕彼柔道牽)”는 구괘의 「상전」<sup>8)</sup>에서 그 출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희가 「재거감흥」 제8수를 창작할 때 구괘와 복괘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괘와 복괘를 활용하여 이 시를 풀이한 채모의 주석은 주희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첨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모의 주석은 『문공주선생감흥시주(文公朱先生感興詩注)』<sup>9)</sup>(이하 『감흥시주』)라는 「재거감흥」 주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모 이외에도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주희의 제전제자 가운데 하기(何基, 1188~1268)<sup>10)</sup>와 웅강대(熊剛大, 1214년 進士)<sup>11)</sup> 또한 「재거감흥」 주석서를 편찬한 바 있다.<sup>12)</sup>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제8수를 기준으로 이들의 주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채모는 구괘와 복괘가 가지는 기미(幾微)의 상징성<sup>13)</sup>을 활용하여 이 시를 해석하였으며, 반면 하기는

8) 『周易·象傳·姤』, “繫于金柅, 柔道牽也.” (금니에 매는 까닭은 음유의 도를 이끌기 때문이다.)

9) 『문공주선생감흥시주』는 채모가 1237년 이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재거감흥」의 작시 풍격을 계승한 아버지 채침의 영향으로 유년 시절부터 「재거감흥」을 친숙하게 접해왔는데, 이는 『감흥시주』 편찬의 계기가 되었다. 채모는 그가 쌓아온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학적 맥락에서 주희의 시의(詩意)를 밝히는 방식으로 「재거감흥」을 주해하였다.

10) 하기는 황간(黃幹, 1152~1221)의 문인(門人)이며, 왕백(王柏), 김이상(金履祥), 허겸(許謙)과 더불어 금화사선생(金華四先生)으로 불린다. 그가 지은 「재거감흥」 주석서는 『해석주자재거감흥시십수(解釋朱子齋居感興詩二十首)』이다.

11) 웅강대는 채모의 백부인 채연과 하기의 스승인 황간에게 사사하였으며, 주희의 제자 웅절(熊節, 1199년 進士)이 편집한 『성리군서구해(性理群書句解)』를 주해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재거감흥」 주석은 『주자감흥시구해(朱子感興詩句解)』라는 서명으로 불린다.

12) 채모, 하기, 웅강대의 주석은 중국의 송(宋)·원(元)·명(明)·청(淸) 시대, 한국의 조선(朝鮮)시대, 일본의 강호(江戶)시대 동안 편찬된 주석서(注釋書) 및 집주본(集注本)에 널리 인용됨으로써 「재거감흥」이 한·중·일 유학자로부터 수양의 보고(寶庫)로 추존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3) 『주자어류(朱子語類)·강령상지상(綱領上之上)·복희괘화선천도(伏羲卦畫先天圖)』에 나타난 주희의 설명에 따르면, “복괘와 곤괘 사이는 무극(復坤之間乃無極)”이다. 따라서 복괘는 태극의 시작을 뜻한다. 또한 그는 “곤괘에서 구괘로 되돌아가

구괘와 복괘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시의 내용을 “천도의 사라지고 자라나는 기미(天道消長之幾)”와 “인심의 선하고 악한 기미(人心善惡之幾)”로 개괄한 특징을 보인다. 웅강대는 구괘와 복괘를 다룬 채모의 주석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되 독자적인 설명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채모의 주석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하기의 주석 일부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채모는 하기와 다른 해석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웅강대가 그의 주석 대부분을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채모의 주석이 송대 학술계에 미친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채모의 『감흥시주』는 『감흥시통(感興詩通)』을 지은 원대(元代)의 호병문(胡炳文)이 가장 중시하였던 주석서라는 점에서 후대에도 그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채모보다 하기가 주목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재거감흥」 제8수를 텍스트로 삼아 채모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8수를 해설한 연구를 권오영(2018), 王錕(2010) 등의 저서에 확인할 수 있으나, 채모의 주석이 아닌 하기의 주석을 인용한 것이다.<sup>15)</sup> 또한 王錕(2014)은 하기와 채모의 「재거감흥」 주석에 나타나는 차이와 모순되는 지점 등을 분석하는 연구

---

는 것은 무극의 전 단계(自坤反姤是無極之前)”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구괘는 무극의 전 단계로 돌입하기 직전에 자리한 태극의 끝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괘와 복괘에 나타난 일음(一陰)과 일양(一陽)은 각기 태극의 끝과 시작 시점에 나타나는 미세한 움직임으로서 기미를 상징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14) 史甄陶, 「從『感興詩通』論胡炳文對朱學的繼承與發展」, 『漢學研究』 26卷 3期, 2008, p.114.

15) 권오영(2018: 35)은 「재거감흥」 제8수가 천도와 인심의 기미를 다루고 있으며, 양을 복돋고 음을 억제하며(扶陽抑陰) 선을 자라게 하고 악을 끊는(長善遏惡) 군자의 수양을 표현하고 있음을 하기의 주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王錕(2010: 53) 또한 하기의 주석을 참고하여 제8수를 해석하면서 음양이 처음 발동하여 교차하는 시점에서의 수양을 다뤘는데, ‘재계(齋戒)’와 ‘폐관(閉關)’과 같은 시어를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연계하여 해석한 점이 특징적이다.

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sup>16)</sup> 이를 통해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채모의 주석이 지닌 학술적 의의를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범위 내에 제8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거감홍」 제8수에 한정해 볼 때,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기와 채모의 주석은 기미와 인심의 수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하기는 이를 이론적인 서술 방식으로 풀어낸 반면에 채모는 구괘와 복괘의 시각에서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채모의 주석이 갖는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모의 주석을 바탕으로 이시를 구괘와 복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미와 인심의 관계 및 수양적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치심의 영역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방면에서 「재거감홍」을 살펴본 사례는 신미자(1999)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재거감홍」에 나타난 태극일관지리(太極一貫之理), 인심(人心)과 도심(道心), 천리(天理)와 인욕(人欲) 등을 밝혔다.<sup>17)</sup> 이는 내용상 본고와 연관성이 있으나 연구 범위가 1~4수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제8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재거감홍」 제8수를 구괘 및 복괘, 그리고 치심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채모의 주석은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총 12구로 구성된 「재거감홍」 제8수를 각 4구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채모의 주석 가운데 구괘와 복괘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분석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

16) 王錕, 「朱熹詩作蘊藏理學思想」, 『中國社會科學報』, 2014.

17) 申美子, 「朱子 感興詩 研究」, 『중국어문학논집』 제11호, 1999.

## 2. 「齋居感興」에 나타난 姤卦와 復卦

채모는 『감흥시주』에서 이 시의 서두 부분인 1~4구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괘와 복괘를 언급하였다.

朱光遍炎宇 붉은 태양이 여름 하늘을 두루 뻗어나갈 때  
微陰眇重淵 미음은 깊은 연못에 눈먼 채<sup>18)</sup> 침잠해 있네  
寒威閉九野 혹한의 위세가 온 별관을 가두어버릴 때  
陽德昭窮泉 양덕은 어두컴컴한 우물에서 밝게 빛나네

대개 음(陰)은 음에서 생성되지 않고 지양(至陽) 속에 항상 잠복[伏]하고 있으니 구괘가 이러하다. 양(陽)은 양에서 생성되지 않고 성음(盛陰) 속에서 은밀히 회복(復)하니 복괘가 이러하다.<sup>19)</sup>

위 주석에 따르면 「재거감흥」 제8수의 1~2구는 구괘의 음효가 잠복하고 있는 형상이며, 3~4구는 복괘의 양효가 회복하는 형상을 표현한

18) 채모를 비롯한 「재거감흥」을 주석한 다수가 '眇'자에 대한 풀이를 남기지 않았으나, 청대(清代)의 오왈신(吳曰愼)과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임성주(任聖周)가 '眇'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오왈신은 『감흥시익(感興詩翼)』에서 “음이 어두운 것을 '眇'라고 한다(陰暗曰眇).”라고 하였으며, 임성주는 『주문공선생재거감흥시제가주해집람(朱文公先生齋居感興詩諸家註解集覽)』에서 “‘眇’의 독음은 ‘藐(묘)’이다(眇音藐).”라고 하였는데, ‘藐’는 ‘멀다’, ‘어둡다’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에 쓰인 ‘眇’자는 아득하고도 어둑어둑한 ‘미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眇’자의 파생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미음’의 양상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眇’자의 본의는 눈이 작다는 것이지만, 북송(北宋) 문인 소식(蘇軾)이 지은 시 「일유(日喻)」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는 해가 뭔지 몰라, 눈이 환한 이에게 해에 관해 물었다(生而眇者不識日, 問之有目者).”로부터 ‘眇’자는 두 눈이 실명되거나 눈 한쪽이 실명되었다는 뜻이 파생되었다. 이와 같은 파생 의미에 근거하여, 미음이 시력의 상실로 인하여 태양의 빛을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19) 『文公朱先生感興詩注』, “蓋陰不生於陰, 而常伏於至陽之中, 姤卦是也; 陽不生於陽, 而潛復於盛陰之中, 復卦是也.”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위 시구는 하기가 『해석주자재거감흥시  
이십수(解釋朱子齋居感興詩二十首)』에서 “천도의 사라지고 자라나는  
기미(天道消長之幾)”라고 설명한 부분이기도 하다. 천도가 소장하는 원  
리가 곧 태극의 도리에 상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구괘에 잠  
복해 있는 일음(一陰)과 복괘에 회복하는 일양(一陽)은 각기 태극의 끝  
과 시작에 나타나는 기미를 상징한다. 더 나아가 주희가 시에 쓴 미음  
(微陰)과 양덕(陽德)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 이들은 천도의  
운행 원리에 의해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각각 생성되기 직전의 잠  
재적 현상을 나타낸 시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음기와 양기가 생성되는 양상은 동정(動靜)의 기기(氣機)를 운용하는  
태극의 도리에 따라 나타난다. 즉, 움직이면서 양이 생성되고, 그 움직  
임이 극에 달하면 다시 고요함의 단계로 넘어섬과 동시에 음이 생성된  
다. 이처럼 음기와 양기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조건은 양기와 음기가 극  
에 달한 상태이다. 채모는 이를 지양(至陽)과 성음(盛陰)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양과 성음을 패상으로 형상화한 것이 건괘(乾卦, ☰)와 곤괘  
(坤卦, ☷)이다. 위에 인용한 채모의 주석처럼 음은 음에서 생겨나지 않  
고, 양은 양에서 생겨나지 않듯이 구괘의 일음과 복괘의 일양이 생성되  
는 전제 조건은 건괘와 곤괘에 있는 것이다. 건괘와 곤괘의 관점에서 구  
괘와 복괘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구괘(☰)는 하늘이자 지양을 상징하는  
건괘 아래에 음효가 잠복하고 있으며, 복괘(☷)는 땅이자 성음을 상징하  
는 곤괘 아래에 양효가 회복하는 양상이다.

「재거감흥」 제8수에서도 이러한 건괘와 곤괘에 상응되는 하늘과 땅  
등의 물상이 시적 형상으로 구현된 시구가 제1구와 제3구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구괘의 일음과 복괘의 일양을 표현한 시구가 제2구  
와 제4구에서 각기 대구를 이루는 형식을 갖는다. 첫 번째 시구인 “朱光



遍炎字”에는 건괘를 의미하는 태양과 하늘이 시어로 활용되었으며, 붉은 태양이 내뿜는 빛으로 가득 찬 여름 하늘로 형상화되었다. 두 번째 시구인 “微陰眇重淵”에는 건괘에 잠복해 있는 미세한 음기가 표현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미음이라는 시어가 함축하고 있는 구괘의 일음이자 기미이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시구인 “寒威閉九野”는 혹독한 추위에 갇힌 대지를 표현한 것으로 곤괘를 연상하게 한다.<sup>20)</sup> 이는 일양이 회복되는 조건인 성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또한 네 번째 시구인 “陽德昭窮泉”에서 양덕은 우물을 밝히는 서광과 같은 빛줄기로서 복괘의 일양이자 기미를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재거감홍」 제8수의 앞 네 구는 구괘와 복괘의 생성 조건 및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태극의 기미를 의미하는 구괘의 일음과 복괘의 일양이 각기 미음과 양덕이라는 시어로 표현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 미음과 양덕은 각기 어둠과 빛, 폐쇄성과 개방성의 이미지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대비적 이미지는 구괘가 지니는 한계성을 복괘의 영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함의를 갖는다. 이처럼 이 시의 주제 의식이 복괘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시에 함축된 치심 수양의 개념 역시도 복괘의 기준에서 파악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채모가 『근사속록(近思續錄)』에서 밝힌 복괘의 종류인 선악지복(善惡之復)과 동정지복(動靜之復)의 시점에서 「재거감홍」 제8수의 5~12구에 나타난 수양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심 공부법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20) “땅의 형세가 곤이다(地勢坤).”라고 한 곤괘의 「상전」에 입각해 보면, 대지를 휩쓴 추위의 위세를 표현한 “寒威閉九野”는 곤괘에 대한 시적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채모는 『감홍시주』에서 구야(九野)를 팔방(八方)과 중앙(中央)이라고 주석하였듯이, 구야라는 시어는 팔방과 중앙을 포괄하는 대지의 공간을 의미한다.

### 3. 復卦의 유형에 따른 治心 공부법

채모는 『근사속록』에서 선악지복은 선악이 음양이 되는 것<sup>21)</sup>이며 동정지복은 동정이 음양이 되는 것<sup>22)</sup>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나타난 선악, 동정, 음양의 개념은 주희가 다음과 같이 인심의 기미에 관해 밝힌 학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幾)는 미세한 움직임이며, 이로부터 선악(善惡)이 나뉜다. 대개 인심(人心)이 은미한 상태에서 발동된 기미는 천리(天理)를 반드시 발현하는데, 그 사이에는 인욕(人欲)이 이미 싹터 있다. 이는 음양의 형상으로 나타난다.<sup>23)</sup>

주희는 「재거감홍」을 창작하던 시기에 편찬한 『통서해(通書解)』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주돈이(周敦頤, 1017~1073)가 말한 “성은 무위하며, 기에서 선악이 나뉜다(誠無爲, 幾善惡).”에 대해 위와 같이 주석하였다. 여기서 그는 선악으로 갈리는 시점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이 바로 기(幾)임을 밝힘과 동시에 마음이 은미하게 움직일 때 발현되는 천리(天理)와 인욕(人欲)<sup>24)</sup>으로 기미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희는 이에 관한 주돈이의 설을 『근사록』의 첫머리에 배치하였으며, 그의 재전제자 섭채(葉采)가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에 기미가 음양(陰陽)의 상

21) 『近思續錄·道體』, “此善惡之爲陰陽也.”

22) 『近思續錄·道體』, “此動靜爲陰陽也.”

23) 『近思錄集解·道體』, “朱子曰：幾者，動之微，善惡之所由分也。蓋動於人心之微，則天理固當發見，而人欲亦已萌乎其間矣。此，陰陽之象也.”

24) 이정환(2010: 39)은 “기미의 단계란 천리와 인욕이 막 싹트는 시점에서 지각주체는 이들이 서로 이질적임을 지각하지만, 아직 내 마음이 이 둘 중 하나에 의해 그 지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근거하여 천리와 인욕을 기미의 일종으로 보고자 한다.

(象)을 떠나는 주자설을 위 예문과 같이 인용하여 주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희가 기미를 음양이라는 형이하학적 도구로 구현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채모가 『근사속록』에서 밝힌 선악지복과 동정지복 역시도 음양의 구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검토에 앞서 선악지복과 동정지복의 측면에서 시구의 배치 구조 및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채모는 『감흥시주』에서 이 시의 1~4구를 해석할 때 구괘와 복괘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5~12구를 해석할 때는 구괘와 복괘의 기미를 상징하는 일음(一陰)과 일양(一陽)이라는 용어를 거론하였다. 채모의 주석 가운데 일음과 일양이 거론된 부분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1부분: 「재거감흥」 1~4구에 대한 채모의 주석

음(陰)은 음(陰)에서 생겨나지[生] 않고 지양(至陽) 속에서 항상 잠복[伏]하고 있는데 구괘가 이러하며, 양(陽)은 양(陽)에서 생겨나지[生] 않고 성음(盛陰) 속에서 은밀히 회복[復]하는데 복괘가 이러하다.<sup>25)</sup>

제2부분: 「재거감흥」 5~8구에 대한 채모의 주석

지양(至陽)이면서 일음(一陰)이 잠복[伏]한다. ... 성음(盛陰)이면서 일양(一陽)이 회복[復]한다.<sup>26)</sup>

제3부분: 「재거감흥」 9~12구에 대한 채모의 주석

하지(夏至)면서 일음(一陰)이 생겨날[生] 때 ... '이것'에 이르도록 한다. '이것'은 양(陽) 가리키는 말이다. ... 동지(冬至)면서 일양(一陽)이

25) 『文公朱先生感興詩注』, “蓋陰不生於陰, 而常伏於至陽之中, 姤卦是也; 陽不生於陽, 而潛復於盛陰之中, 復卦是也.”

26) 『文公朱先生感興詩注』, “至陽而一陰伏. ... 盛陰而一陽復.”

생겨날[生] 때 ...‘저것’을 끊도록 한다. ‘저것’은 음(陰)을 가리키는 말이다.<sup>27)</sup>

위 내용 가운데 제2부분에서는 일음과 일양이 잠복[伏]하거나 회복[復]한다고 밝혔지만 제3부분에서는 일음과 일양이 생겨날[生] 때를 거론하였다. 일음과 일양이 곧 기미를 상징한다는 시각에서 보자면, 제2부분은 잠복 및 회복의 기능을 발휘하는 시점을, 제3부분은 기미가 생성되는 시점을 논한 것이다.

또한 이 주석은 기미가 인심에서 일어나는 현상적 측면에서 인심의 내외(內外)<sup>28)</sup>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인심의 내부는 기미가 발생하는 공간인데, 이곳의 기미는 불현듯 지나가는 찰나의 생각과 같이 미세하게 움직이므로 감지해 내기 어렵다. 그러나 기미가 발생한 이후에 인위(人爲)적 인식 작용을 거치고 나면 인심의 외부에서 지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sup>29)</sup>

이처럼 기미의 종류에 따라 인심의 내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채모가 동정지복과 선약지복을 설명할 때 인심에서 감지되는 현상을 밝힌 내용과 유사하다. 채모는 동정지복에 대해 “마치 적막하고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잠깐 스치는 움직임”<sup>30)</sup>과 같다고 말하였다. 이는 인심 내부에서 일

27) 『文公朱先生感興詩注』, “夏至一陰生之時, … 及此… 此, 指陽而言. … 冬至一陽生之時, … 絕彼… 彼, 指陰而言.”

28) 『주역·문언전(文言傳)』에 나타난 곤괘(坤卦) 육이효(六二爻) 효사(爻辭)에 따르면, “군자는 경으로 안을 곧게 하고 의로워 밖을 방정하게 한다(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사람의 마음은 내외(內外)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29) 『朱子語類·論語二十三·顏淵篇上·顏淵問仁章』, “思是動之微, 爲是動之著. 這個是該動之精粗. 爲處動, 思處亦動; 思是動于內, 爲是動于外. 蓋思于內, 不可不誠; 爲于外, 不可不守.” 『朱子語類·周子之書·誠幾德』, “幾者, 動之微, 動則有爲, 而善惡形矣.”

30) 『近思續錄·道體』, “若寂然至靜之中, 有一念之動.”

어나는 찰나의 생각과 같다. 이와 더불어 그는 선악지복에 대해 “종일토록 앵앵거리며 왕래하는 모습으로 사물과 더불어 나란히 달리다가 홀연히 측은, 시비, 수오지심이 발현된다.”<sup>31)</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인심 외부에서 일정한 인위적 사유가 일어나는 양상과 같다. 채모는 위와 같이 밝힌 내용에 각기 “이는 동정이 음양이 되는 것이다(此動靜爲陰陽也)”, “이는 선악이 음양이 되는 것이다(此善惡之爲陰陽也)”라는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인심 내외에서 기미가 감지될 때의 현상이 음양의 구도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미의 종류는 주희의 기미 학설을 통해 더욱 구체화해 볼 수 있다. 위 예문에서 주희는 기미가 처음 발생하는 인심 내부를 “인심의 은미한 곳(人心之微)”이라고 일컬었는데, 이곳으로부터 천리(天理)가 발현되고 그 속에 인욕(人欲)이 싹튼다. 이 양상이 인심 외부로 확장되면 각기 선기(善幾)와 악기(惡幾)로 변모한다. 주희는 이러한 천리와 인욕, 선기와 악기가 “음양의 상(陰陽之象)”을 갖는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채모는 이를 구괘와 복괘의 형상에 빗대어 천리와 선기가 복괘의 일양(一陽)이며 인욕과 악기가 구괘의 일음(一陰)에 상응한다고 본 듯하다. 이와 같은 추론에 따르면, 제3부분은 기미가 마음의 내부에서 발동함으로써 천리와 인욕이 생성된 시점 및 정황에 관한 것이며, 제2부분은 기미가 마음의 지각이 가능한 정도로 진전을 보인 후에 악기로서 잠복해 있거나 선기로서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기 및 악기, 천리 및 인욕으로 분류되는 두 유형의 기미는 발현되는 인심의 상태에 따라 세분된다. 이러한 점은 기미가 인심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방증이며, 시에 나타난 기미 관련 표현은 인심

31) 『近思續錄·道體』, “終日營營, 與物並馳, 忽然有惻隱、是非、羞惡之心發見.”

에 대한 수양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는다. 비록 기미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현상이며, 인심 역시도 쉽게 파악되지 않는 수양의 영역이므로, 생활 속 도덕적 실천과 직접적 연결고리를 갖는 치심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주희의 창작 의도에 근접하는 방법일 것이다. 주희가 「재거감흥」의 자서(自序)에서 이 시는 모두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양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처럼 말이다.<sup>32)</sup>

### 1) 善惡之復을 통해 본 誠心 공부

앞 장에서 「재거감흥」 제8수의 앞 네 구에 형상화된 구괘와 복괘의 생성 조건 및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태극의 기미를 의미하는 구괘의 일음과 복괘의 일양이 각기 미음과 양덕이라는 시어로 표현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5~6구에 대해 채모는 이 기미를 일음과 일양이라는 용어로 특정하고 이들이 갖는 수양적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文明昧謹獨 文明하나 근독을 통한 경계에는 어두우며  
昏迷有開先 혼미하나 실마리를 열어 이끌 수 있다네

지양이면서 일음이 잠복하므로 비록 문명할지라도 간혹 근독을 통한 경계에 어둡기도 하다. 성음이면서 일양이 회복되므로 비록 혼미하나 그 실마리를 열어 이끄는 방도를 확실히 보유하고 있다.<sup>33)</sup>

위에 인용한 각 시구에는 기미와 관련한 수양 방법인 근독(謹獨)과

32) 「齋居感興序」, “齋居無事, 偶書所見, 得二十篇, … 皆切於日用之實.”

33) 『文公朱先生感興詩注』, “至陽而一陰伏, 故雖文明, 而或昧謹獨之戒. 盛陰而一陽復, 故雖昏迷, 而實有開先之道.”

개선(開先)이 시어로 쓰였다. 그중에서 제5구에 쓰인 근독(謹獨)은 주희가 『대학장구(大學章句)』와 『중용장구(中庸章句)』에서 신독(愼獨)을 풀이할 때 사용한 말이다. 주희가 『대학장구』와 『중용장구』에서 공통으로 언급한 내용 중 첫 번째는 독(獨)에 관한 설명이다. 주희는 독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자신만이 홀로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풀이하였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근독과 기미의 상관성에 관한 언급이다. 그는 『대학장구』에서 근독을 할 때 기미를 살피는 심기(審幾)의 필요성을 밝혔는데 그 목적은 선(善)을 지향함으로써 악(惡)을 제거하는 데 있다. 또한 『중용장구』에서는 평소에 행하는 계신공구(戒愼恐懼)에 더하여 근독에 힘쓰면 장차 인욕(人欲)이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심의 기미는 발현될 때의 상태에 따라 선기와 악기, 또는 천리와 인욕으로 구분되는데, 『대학장구』에서는 악기의 제거를 『중용장구』에서는 인욕의 방비를 수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주희가 각 주석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미의 유형은 다르지만, 근독이 인심의 기미를 다루는 중요한 수양 방법임은 분명한 듯하다. 제5구 “文明昧謹獨”에 표현된 구괘는 설령 문명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 까닭에 대해 채모는 위 주석에서 “지양이면서 일음이 잠복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구괘에 나타나는 일음 역시도 태극의 기미에 속하나 인심의 기미를 살피고 통제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채모의 주석에 따르면 제6구 “昏迷有開先”에 표현된 복괘는 성음으로 인한 혼미함 속에서도 개선의 능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 개선(開先)의 의미에 대해 채모가 언급한 바는 없다. 역대 「채거감흥」 주석서에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풀이한 사례는 드문데, 원대(元代) 유리(劉履)가 『선시속편보주(選詩續編補注)』에서 “개선은 그 실마리를 열어 이끄

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開先, 謂啓其端而導之也.)”라고 설명한 주석을 참고할 만하다. 이 주석에서 언급된 그 실마리(其端)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7~8구에 나타난 기미(幾微)와 선단(善端)과 같은 시어와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개선의 능동성을 지닌 복괘의 일양은 인심의 기미에 관한 수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주희가 5~6구에서 구괘 일음의 한계점과 복괘 일양의 영향력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채모의 주석에 따르면 다음 7~8구는 일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일양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식의 마음 수양 방법이 제시된다. 이는 인심에 나타나는 선악의 기미에 관한 것이다. 선악의 기미는 인심(人心)과 인성(人性)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먼저 인심의 인지 기능인 심지(心知)가 일상에서 사물을 접한 후 감응하여 인성(人性)이 발동한 이후, 인성으로부터 일어난 발동이 다시 인심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선악의 기미로 분파된다. 즉, 음기(陰氣)로 인해 형성된 인심의 형(形)에서 악기(惡幾)가 나타나고, 양기(陽氣)에 의해 발현된 인심의 신(神)에서 선기(善幾)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선악의 기미는 인심의 형신(形神)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 뜻을 뜻한다.<sup>34)</sup> 이러한 관점에서 「재거감홍」 제8수의 7~8

34) 선악의 기미가 나타나는 원리에 관해 설명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近思錄集解·道體』, “朱子曰: … ‘蓋人物之生, 莫不有太極之道焉, 然陰陽五行氣質交運而人之所稟, 獨得其秀, 故其心, 爲最靈而有以不失其性之全, 所謂天地之心而人之極也, 然形生於陰, 神發於陽, 五常之性, 感物而動, 而陽善陰惡, 又以類分.’” [사람과 물건이 태어남에 태극(太極)의 도가 있지 않음이 없으나, 음양오행의 기질이 서로 운행하는데 사람이 타고난 것이 유독 그 빼어난 기운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가장 영특하여 온전한 본성(性)을 잃지 않을 수 있으니, 이는 이른바 천지지심으로 인극(人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形)은 음에서 생기고 신(神)은 양에서 나오니 오상(五常, 인·의·예·지·신)의 성(性)이 사물에 감응한 인심에 의하여 발동함에 따라 양선(陽善)과 음악(陰惡)으로 유별된다.] 『朱子語類·周子之書·誠幾德』, “有感而動, 卽有善惡, 幾是動處.” 祖道 [(인심이) 감응하여 (인성이) 움직이면 곧 선



구와 이에 대한 채모의 주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幾微諒難忽 기미의 때에 진실로 소홀하지 않으면  
善端本綿綿 선의 단서를 언제나 이어갈 수 있다네

지양이면서 일음이 잠복하고 있다는 점은 근독의 경계를 어둡게 하므로 기미(幾微)의 때에 진실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음이면서 일양이 회복된다는 점은 그 실마리를 열어 선도하게 하므로 선(善)의 단서가 매 순간 존재하도록 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sup>35)</sup>

위의 “幾微諒難忽”이라는 시구의 ‘諒’자에 대해 채모는 ‘誠’자를 사용하여 주석하였다. 이는 동시대의 주석가인 하기와 웅강대와도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하기는 『해석주자재거감흥시이십수(解釋朱子齋居感興詩二十首)』에서 이 시구를 해석하면서 “악은 기미에서 소홀해선 안 되는 부분이며 조기에 끊어내야 한다(惡則不忽於幾微, 而絕之於早).”라고 하며 악기(惡幾)의 제거를 주장하였다. 또한 웅강대는 『주자감흥시구해(朱子感興詩句解)』에서 채모와 하기의 학설을 절충하여 “기미의 때는 악이 싹트는 시점이므로, 신(信)을 소홀해선 안 된다(幾微之際, 惡所萌也, 信不可忽).”라고 주석하였다. 여기서 ‘信’자를 ‘진실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채모가 밝힌 ‘誠’자에 착안해 본다면, ‘信’은 악의 맹아를 제거하기 위해 성(誠)에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뜻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모가 사용한 ‘誠’자를 단순한 부사적 의미로 국한하지 않고

악(善惡)이 있게 된다. 이때의 기미는 움직이는 곳이다.]

35) 『文公朱先生感興詩注』, “至陽而一陰伏, 故雖文明, 而或昧謹獨之戒. 盛陰而一陽復, 故雖昏迷, 而實有開先之道. 惟其昧謹獨也, 故幾微之際, 誠不可忽; 惟其有開先也, 故善之端緒, 每綿綿而不絕焉.”

그의 관점을 함축한 시어로서 그 의미를 확대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그 근거는 주희가 「재거감흥」을 창작할 때의 학술적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거감흥」을 지은 해에 완성한 『태극도설해』에서 주희는 태극(太極)이 보유한 동정(動靜)의 도리(道理)를 성(誠)에 빗대어 풀이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태극의 도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성의 형통함(誠之通)이고 그를 이어나가는 것은 선(善)이며, 고요한 것은 성의 회복됨(誠之復)으로서 성(性)이 완성된다.<sup>36)</sup> 이처럼 성(誠)의 움직임에 따라 선(善)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발현된 선단(善端)이 인성의 본연지체(本然之體)를 이룬다는 관점에 따라 이 시구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주석에서 채모는 앞서 제5구에서 밝힌 구개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인심의 기미가 발현될 때 중시되어야 할 성(誠)의 수양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기와 악기로 분과된 단계(幾善惡)’에서 ‘성 하나로 관통되는 단계(誠無爲)’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치심의 과정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인심이 ‘성무위(誠無爲)’의 단계에 이룬다는 것은 적연부동(寂然不動)의 상태이자<sup>37)</sup>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실리(實理)<sup>38)</sup>가 인심 그 자체여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다. 주희는 이것이 바로 태극이라고 하였는데,<sup>39)</sup> 이는 인심이 태극의 도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36) 『周濂溪集』 卷一, 「朱子太極圖說解」, “太極之有動靜, 是天命之流行也。所謂一陰一陽之謂道。誠者, 聖人之本, 物之終始, 而命之道也。其動也, 誠之通也, 繼之者善, 萬物之所資以始也。其靜也, 誠之復也, 成之者性, 萬物各正其性命也。”

37) 『朱子語類·周子之書·誠幾德』, “當‘寂然不動’時, 便是誠無爲。”

38)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따르면, 진실한 이치를 뜻하는 실리(實理)는 인간의 본성(性) 속에 있는 도리(道理)로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주희는 이 본성을 바로잡아 발현시키는 데 마음의 역할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朱子語類·性理一·人物之性氣質之性』, “須是有箇心, 便收拾得這性, 發用出來, 蓋性中所有道理, 只是仁義禮智, 便是實理.” 참고.

39) 『近思錄集解·道體』, “誠無爲, 朱子曰: 實理自然, 何爲之有? 卽太極也.”

제6구는 선단이 인성(人性)의 본연지체(本然之體)에 면면히 이어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기(善幾)의 발현 양상은 복괘가 발휘하는 개선의 능동성에 따라 인심에서 선단(善端)을 감발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선단이란 측은(惻隱), 수오(羞惡), 공경(恭敬), 시비(是非)<sup>40)</sup>를 일컫는다. 이 감발된 선단은 인심이 '성무위'를 이루게 되면 선한 본성으로 지속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채모의 『근사속록(近思續錄)』 「도체(道體)」편에서 밝힌 선악지복(善惡之復)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종일토록 앵앵거리며 왕래하는 모습으로 사물과 더불어 나란히 달리다가 홀연히 측은, 시비, 수오지심이 발현된다면 이는 선악(善惡)이 음양(陰陽) 되는 바이다. … 염계는 귀처설(歸處說)로 선악지복(善惡之復)을 설명하였는데, … 그가 언급하였던 “이정(利貞)은 회복된 성(誠)이다.”라는 말은 “성심(誠心)이란 불선함이 발동한 곳으로부터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를 일컫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귀처설이다.<sup>41)</sup>

위에서 말한 “사물과 더불어 나란히 달린다(與物並馳).”라는 것은 감물(感物) 하며 일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인심의 정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인심에는 악한 기미가 잠복하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측은, 시비, 수오지심이 발현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선단과 선기가 지각되는 때이다. 이로 인해 선악의 기미가 음양의 형상을 이루며 혼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채모는 주돈이의 말을 인용하여 악한 기미가 발동한 곳으로부터 발동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법으로서 성심(誠心)

40) 『朱子語類·孟子九·告子上·仁人心也章』, “所謂惻隱、羞惡、恭敬、是非之善端.”

41) 『近思續錄·道體』, “終日營營, 與物並馳, 忽然有惻隱、是非、羞惡之心發見, 此善惡之爲陰陽也. … 濂溪就歸處說復, … 濂溪云‘利貞, 誠之復’, 謂‘誠心, 復其不善之動’也, 此就歸處說.”

을 거론하였는데, 이 성심이 바로 선악의 기미와 관련한 치심 공부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動靜之復을 통해 본 正心 공부

채모는 『근사속록』에서 앞 절에서 살펴본 선악지복과 더불어 동정지복(動靜之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복은 선악지복과 동정지복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 마치 적막하고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잠깐 스치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러한 동정(動靜)이 음양(陰陽)이 되는 것이다. ... 이천은 동처설로 복을 설명하였다. ... 이천이 말한 원형이정(元亨利貞) 가운데 원(元)이 복(復)인데, 이것이 바로 동처설이다.<sup>42)</sup>

위 설명에서 적막하고 지극히 고요한 상태는 앞 장에서 설명한 ‘성무위’, ‘적연부동’, ‘태극’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심의 은미함 속에서 잠깐 스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리와 인욕의 기미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심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적연부동의 상태가 되어 성(誠)이 통하게 될 때 태극의 도리에 의해 운용되는 동이 생양(動而生陽)의 원리에 따라 천리의 기미가 생성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천리는 성(誠)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자 동정지복의 기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자어류(朱子語類)·주자지서(周子之書)·성기덕(誠幾德)』에 나타난 천리와 인성의 움직임에 관한 학설을 참고해 볼 수 있다.

---

42) 『近思續錄·道體』, “復有兩般, 有善惡之復, 有動靜之復. ... 若寂然至靜之中, 有一念之動, 此動靜爲陰陽也. ... 伊川就動處說復. ... 伊川說‘元亨利貞’, 則‘元’爲‘復’, 此就動處說.”

대체로 인성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올바름에 놓일 때가 있다. 그것이 움직일 곳에서 올바른 때에 놓인다면 바로 “덕으로, 사랑이 인(仁)이고, 올바름이 의(義)이다.” 위치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곧 바로 모두가 올바름과 반대가 된다. 인성이 어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마땅히 중(中)의 상태에서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으로 나뉘도록 해야만 비로소 올바르게 될 것이다.<sup>43)</sup>

위에서 주희는 인성이 올바름의 위치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中)의 상태에서 천리와 인욕이 나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중의 상태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희는 중을 『중용』에서 밝힌 미발(未發)의 의미로서 성(誠)의 의미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sup>44)</sup> 따라서 미발의 중을 성(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마음에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발현되지 않고 천명(天命) 그대로의 본성이 통하는 “성의 형통함(誠之通)”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앞 절에서 논한 치심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선악의 기미가 나타난 이후에 치심을 통해 마음을 선한 상태로 되돌리는 성심(誠心)의 노력이며, 마음에 희로애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절도에 맞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중절(中節)의 수양에 부합한다. 주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심(正心)을 풀이하였다. 그가 생각한 정심이란 이러한 마음을 저러한 마음으로 바르게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중절의 상태에 둘 따름이라고 하였다.<sup>45)</sup> 이러한 정심의 과정에서 나

43) 『朱子語類·周子之書·誠幾德』, “大凡人性不能不動, 但要頓放得是, 於其所動處頓放得是時, 便是德: 愛曰仁, 宜曰義; 頓放得不時, 便一切反是, 人性豈有不動? 但須於中分得天理人欲, 方是.” 祖道

44) 『朱子語類·周子之書·誠幾德』, “曾問誠無爲, 幾善惡. 曰: ‘誠是實理, 無所作爲, 便是天命之謂性, 喜怒哀樂未發之謂中’.”

45) 『朱子語類·大學三·傳七章釋正心修身』, “問: ‘忿懣、恐懼、憂患、好樂, 皆不可有否?’ 曰: ‘四者豈得皆無! 但要得其正耳, 如中庸所謂喜怒哀樂發而中節者也.’” 去偽, 『朱子語類·大學三·傳七章釋正心修身』, “正心, 卻不是將此心去正那心, 但存得此心在這裏, 所謂忿懣、恐懼、好樂、憂患自來不得.” 賀孫.

타나는 기미가 천리와 인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천리는 채모가 밝힌 동정지복의 관점에서 보자면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잠시 스치는 생각이다. 또한 이는 정이(程頤, 1033~1107)가 밝힌 동처설의 원(元)이고, 여기서 원은 사람의 측면에서 인(仁)에 상응한다.<sup>46)</sup> 또한 원은 동정지복에서의 움직임(기미)이며, 복괘의 일양이자, 「재거감홍」 제8수의 시어인 양덕(陽德)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앞서 일음과 일양 관련 주석에 근거하여 「재거감홍」 제8수의 9~12구는 인심의 기미 중에서 천리와 인욕을 다룬 내용이라고 추론하였듯이, 다음과 같은 9~10구에서도 중절을 수행하는 정심의 과정에서 천리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인욕을 방지하는 시적 형상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다음 시구에 나타난 재계는 치심의 완성 단계와 관련한 수양법이라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掩身事齋戒 몸을 숨기어 재계에 힘써 나아가  
及此防未然 양에 이르러 음을 미연에 막아내고

『예기(禮記)』 「월령(月令)」편에 이르기를 “군자는 재계하고 반드시 몸을 숨기는 은폐한 곳에 거처하며 조금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하지에 일음(一陰)이 생겨날 때 반드시 기욕(嗜欲)을 물리쳐 끊어냄으로써 ‘이것’에 이르면 그 음(陰)이 미연(未然)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양(陽)을 가리키는 말이다.<sup>47)</sup>

채모의 주석에는 위 시구에 나타난 엄신과 재계를 실천하는 시점이

46) 『周易·乾卦·彖傳』, “在天, 爲四德, 元亨利貞也. 在人, 爲五常, 仁義禮智信也.”

47) 『文公朱先生感興詩注』, “「月令」曰: 君子齋戒, 處必掩身, 毋躁. 言於夏至一陰生之時, 必屏絕嗜欲, 及此而防其陰之未然也. 此, 指陽而言.”

“하지에 일음이 생겨날 때”라고 언급되어 있다. 십이벽괘설(十二辟卦說)에 따르면 하지에 있는 음력 5월은 구괘가 나타나는 달이다. 따라서 위 시구는 구괘의 기미가 나타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신(掩身) 및 재계(齋戒)를 통해서 천리의 경지에 이르면 인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주희가 『중용장구』에서 근독을 통해 장차 인욕이 싹트는 것을 방지한다고 밝힌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아직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독(獨)의 공간에 선악의 기미가 나타났을 때 성심(誠心)을 통해 적연부동한 중의 상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인욕을 막고 천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시구에 나타난 엄신과 재계는 구괘의 한계로 지목되었던 근독을 대체할 수 있는 수양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채모는 엄신 및 재계의 과정에서 기욕(嗜欲)을 끊어내는 수양 방법이 필요함을 그의 주석을 통해 드러내었다. 기욕은 “나는 인을 하고자 한다.”<sup>48)</sup>와 같은 문구에 나타난 ‘欲’자에 해당한다.<sup>49)</sup> 누구나 본성에 보유하고 있는 인(仁)을 실천하려 할 때도 마음에 기욕을 품으면 인을 이룰 수 없다. 그렇지만 정심의 수양이 뒷받침된다면 사랑(愛)과 같은 덕(德) 역시도 인(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 천리를 뜻하므로, 위 시구에 나타난 엄신과 재계는 곧 기욕을 물리쳐 끊어내어 천리이자 인에 도달하는 수양 방법을 표현한 시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엄신과 재계의 수양

48) 『論語·述而』, “我欲仁.”

49) 주희는 인심에 대해 정의하면서 이 몸에 지각과 기욕이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예시로 “我欲仁”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예문에 담긴 ‘欲’은 곧 기욕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朱子語類·中庸一·章句序』, “曰：人心是此身有知覺，有嗜欲者，如所謂我欲仁，從心所欲，性之欲也，感於物而動，此豈能無.”

법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구 및 복괘와의 관련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한 11~12구 및 채모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閉關息商旅 관문 닫아 상인과 나그네 쉬게 하여  
 絶彼柔道牽 나약한 도 이끄는 음을 끊어낸다네

『주역』에 이르기를 “선왕이 복괘를 보고 지일에 관문을 폐쇄하여 상인과 나그네가 다니지 않게 한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동지에 일양(一陽)이 생겨날 때 반드시 안정하고 존양하여 ‘저것’이 음유한 도를 끌고 나아가려는 행보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것’은 음(陰)을 지칭하는 말이다.<sup>50)</sup>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閉關息商旅”는 복괘 「상전」의 내용이다. 주희는 『주역본의』에서 이 「상전」의 내용을 주해하면서, “안정함으로써 미양(微陽)을 기르는 것이다. 『예기·월령』에 따르면, 이달에는 재계하고 몸을 숨기며 음양이 정해지기를 기다린다.”<sup>51)</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미양(微陽)은 복괘(䷗)의 초구(初九)를 지칭하며 양기(陽氣)가 미미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채모가 주석에서 언급한 일양이 생겨나는 시점은 동지가 있는 11월을 뜻하므로, 일양은 복괘의 기미를 상징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시구인 “絶彼柔道牽”은 『주자어류』에 나타난 주희의 설명<sup>52)</sup>에 근거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시구의 “絶彼”는 음기(陰氣)를 끊어내는 방법으로 구괘 초육(初六)의 “금니에 매다는 것(繫于金柅)”을 뜻한다.

50) 『文公朱先生感興詩注』, 『易』曰: 先王以至日閉關, 商旅不行, 后不省方. 言冬至一陽生之時, 必安靜存養, 絶彼柔道之牽繫也. 彼, 指陰而言.

51) 『周易本義·象傳·復』, “安靜以養微陽也. 月令, ‘是月, 齋戒掩身, 以待陰陽之所定.’”

52) 『朱子語類·易七·復』, “閉關息商旅, 所以養陽氣也. 絶彼柔道牽, 所以絶陰氣. 易姤之初六‘繫于金柅’是也.”



금니(金柅)란 수레의 움직임을 막는<sup>53)</sup> 쇠고동목이다. 구괘(䷮)의 음효는 비록 미약하나 “음유(陰柔)의 도를 이끄는(柔道牽)”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니와 같은 제동 장치를 사용하여 막아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마지막 시구인 “絶彼柔道牽”은 구괘 초육의 「상전」에 나타난 “금니에 매는 까닭은 음유의 도를 이끌기 때문이다(繫于金柅, 柔道牽也).”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1~12구는 안정을 통해 복괘의 기미를 존양함으로써 구괘의 기미를 끊어낸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9~10구에서 정심을 통해 인심의 천리에 다다른 후 인욕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내용과 대응된다.

#### 4.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주희의 「재거감홍」 제8수를 『주역』 구괘 및 복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미와 관련한 인심의 수양법을 치심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재거감홍」 제8수 1~4구를 살펴본 제2장에서는 건괘와 곤괘에 상응하는 하늘과 땅 등의 물상을 통해 구괘와 복괘의 생성 조건 및 구조가 형상화된 특징을 파악하고, 태극의 기미를 의미하는 구괘의 일음과 복괘의 일양이 각기 미음과 양덕이라는 시어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의 1절 부분에서는 「재거감홍」 제8수 5~8구에 나타난 선악지복의 치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시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복괘가 발휘하는 개선의 능동성에 따라 선한 기미가 인심에서 선단으로 감발되고

53) 『周易正義·周易兼義·姤·初六·疏』, “惟馬云‘柅者, 在車之下, 所以止輪令不動者也.’”

이 감발된 선단은 인심이 ‘성무위’를 이루게 되면서 선한 본성으로 지속되는 효과를 보이게 됨을 밝혔다. 또한 악한 기미가 발동한 곳으로부터 발동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법인 성심이 바로 선악의 기미와 관련한 치심 공부법이라는 점을 추론하였다.

2절 부분에서는 「재거감홍」 제8수 9~10구에서 엄신과 재계를 통해 다다른다고 표현된 ‘이것(此)’이라는 시어가 동정지복의 기미이자 천리라는 점을 논증하고 재계의 치심적 의미를 정심의 측면에서 시탐하였다. 이러한 논구의 과정에서 성심을 통해 마음을 중절의 상태에 두는 정심을 실천할 때 인심에서 기미(천리와 인욕)가 나타난다는 주희의 학설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채모의 주석에 근거하여 시구를 분석함으로써 천리를 통해 인욕을 미연에 방어한다는 내용의 9~10구가 복괘의 기미로 구괘의 기미를 끊어낸다는 내용의 11~12구와 상응한다는 점을 알아보았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 國內

권오영, 『조선 성리학의 형성과 심화』, 문헌출판, 2018.

명문당편집부 校閱, 『備旨具解 原本周易』 乾坤, 명문당, 1999.

주희 지음, 박신환, 윤원현, 추기연 옮김, 『태극해의』, 소명출판, 2009.

周敦頤 지음, 朱熹 주석, 권정안, 김상래 공역, 『通書解』, 청계, 2000.

#### - 國外

黎靖德 編, 王星賢 點校, 『朱子語類』, 中華書局, 2004.

卜東波 編校, 『朱子感興詩中日韓古注本集成』(上), 上海古籍出版社, 2019.

葉采 集解, 程水龍 校注, 『近思錄集解』, 中華書局, 2020.

王錕, 『朱學正傳—北山四先生理學』, 上海三聯書店, 2010.

程水龍, 顧宏義, 丁小明 校點, 『近思錄專輯 第二冊 近思續錄』,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5.

周敦頤 撰, 『周濂溪集』, 商務印書館, 1937.

## 2. 논문

### - 國內

김진희, “『근사록(近思錄)』 주석서에 나타난 주자설 고찰 — 치심(治心) 수양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112집, 2023.

김진희, “朱熹의 『詩』 독법을 통해 본 治心 수양 — 觀詩와 讀詩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간』 56집, 2025.

신미자, “朱子 感興詩 研究”, 『중국어문학논집』 제11호, 1999.

임노직, “퇴계학파의 주자 『재거감흥이십수(齋居感興二十首)』 수용 양상 검토”, 『안동학연구』 17집, 2018.

이정환, “주희 수양론에서 실천주체와 실천의지”, 『철학사상』 37집, 2010.

### - 國外

史甄陶, “從『感興詩通』論胡炳文對朱學的繼承與發展”, 『漢學研究』 26卷 3期, 2008.

王錕, “朱熹詩作蘊藏理學思想”, 『中國社會科學報』, 2014.

## Mind Cultivation of 「Zhaijuganxing」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Gougua and Fugua in 『Zhouyi』: Focusing on the Incipient Subtlety

Kim, Jin-hee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ltivation method of the human mind related to the Incipient Subtlety based on Cai Mo's commentary, which analyzed the eighth number of 「Zhaijuganxing」 by Zhu Xi from the perspective of Gougua and Fugua in 『Zhouyi』, and examines it from the Mind Cultivation. In Chapter 2, it was analyzed that the shape of the Gougua and Fugua that appeared in verses 1-4 of this poem. In Chapter 3, the study of Mind Cultivation was discussed based on the types of Fugua related to the Incipient Subtlety of human mind in verses 5-12 of this poem. Through discussions on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the study of the sincerity of mind related to the Incipient Subtlety of good and evil, and the study of the properly control mind related to the heavenly principle and human desire.

### Key Words

Zhu Xi, 「Zhaijuganxing」, Mind Cultivation, Incipient Subtlety, Gougua, Fugua

논문접수일: 2025.12.08. 심사완료일: 2025.12.20. 게재확정일: 2025.12.30.

---

\* Academic research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n Style Research Center / E-mail: jbnuhao@jbnu.ac.kr